

20세기 여자 테니스웨어의 시대별 디자인 특성 고찰

박 신 미* · 이 재 정**

시드니대학교 박사* · 국민대학교 의상디자인과 교수**

A Decade by Decade Exploration of Design Features of Women's Tennis Wear in the Twentieth Century

Shinmi Park* · Jae-Jung Lee**

Ph.D., Theoretical Enquire Studio (Contemporary Fashion),

Research Department of Visual Arts, The University of Sydney*

Professor, Division of Fashion Design Contents, Kookmin University**

(투고일: 2009. 11. 25, 심사(수정)일: 2010. 3. 15, 게재확정일: 2010. 3. 18)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lassify the design features of twentieth century women's tennis wear. The specific research questions are; how tennis has developed and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ennis wear and modern dress? What are the important developments in women's tennis wear design in the twentieth century?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exhibited in each decade in women's tennis dress? This paper conducted current research by considering the women's tennis wear as a background of dress simplification. Forty pictures showing tennis wear from international tennis games' catalogues and literatures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Researchers employed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providing a systematic review of the previous studies analyzed by content. The results show that sportswear has become an important trend in contemporary fashion. Tennis wear also had influence on modern dress. Current development is concentrated on functional new materials and sports marketing.

Key words: active sportswear (액티브 스포츠웨어), design features (디자인 특성), twentieth century fashion (20세기 패션), women's tennis wear (여자 테니스웨어)

I. 서론

현대패션에서 스포츠웨어는 기능성과 심미성을 만족시키며, 하나의 독립적 트렌드로 그 입지를 굳혔다. 광의의 의미로 '스포츠웨어(Sportswear)'는 여러 스포츠 종목들, 곧 테니스, 수영, 자전거 등을 즐기기 위한 기능적 의상을 통칭하지만¹⁾, 이것은 협의의 의미로 운동경기를 위한 '액티브 스포츠웨어(Active Sportswear)'와 격식을 갖추지 않은 평상복(Day wear)인 '스펙테이터 스포츠웨어(Spectator Sportswear)'로 구분된다. 20세기 초 액티브 스포츠웨어는 스펙테이터 스포츠웨어를 탄생시키며, 현대복식의 단순화에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측면에서, 패션사학자 레이버(Laver)는 "스포츠웨어가 복식의 역사에서 남성복과 여성복의 현대화를 주도했다²⁾"고 주장한다.

19세기 후반 스포츠애호가들은 이미 경기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단순화된 의복형식, 곧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중 전쟁으로 인한 활동적의복의 요청은 프랑스에 '스포츠웨어 하우스(Sportswear House)'를 설립하게 만든다³⁾. 이러한 환경은 1928년 경기복(Active Sportswear)과는 차별화된 관람복으로서 '스펙테이터 스포츠 스타일(Spectator Sports Style)'을 패션잡지에 처음 등장시키며, 스포츠웨어의 대중패션 진입을 촉진시킨다⁴⁾. 이후, 1940년대 패션은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의 뉴룩(New look)과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편안한 스타일의 스포츠 웨어가 유행한다⁵⁾. 기능주의가 절정에 이른 1960년대에는 액티브 스포츠웨어 형식을 근거로 스포티한 이미지가 패션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며 '스포티브 룩(Sporty Look)'의 개념이 정립되고, 이는 1968년 스트리트 패션(Street Fashion)을 새로운 패션 아이콘으로 올려놓는다. 건강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1970년대는 조깅웨어(Jogging Wear)가 유행하고, 1980년대 대량생산의 파워를 보여준 나이키(Nike)사의 급부상은 액티브 스포츠웨어 브랜드 자체를 하나의 패션 트렌드로 만들며, 이것이 새로운 시대를 위한 패션비즈니스의 방향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20세기 액티브 스포츠웨어는 패션과의 관계 속에 발전되어왔다.

현재, 스포츠웨어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현대 패션에 나타난 스포티브 룩(sportive look)의 미적특성을 고찰하거나⁶⁾,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있으며⁷⁾, 기능적 스포츠웨어 디자인을 제안하고 있다⁸⁾. 또한, 20세기 스포츠웨어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스포츠종목들의 스포츠웨어 디자인들을 포괄적으로 연구하고 있다⁹⁾.

스포츠웨어는 근대여성들에게 테일러 슈트 착용의 계기를 부여했으며 현대 의복 단순화의 촉매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스포츠웨어의 발전과정은 패션의 현대화와 상업적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20세기 여자 테니스웨어의 변천과정 고찰은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스포츠 발생단계에서부터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 테니스 종목의 여자 테니스웨어를 고찰하기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10년 단위로 20세기 여자 테니스웨어를 분석하여, 각 시기별 디자인 특성을 추출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도출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테니스는 어떻게 발전되었고, 이것은 근대복식발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둘째, 1900년부터 1999년까지의 연구범위에서 10년 단위로 구분된 각 시기별 여자 테니스웨어의 특징은 무엇인가?

제시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위해 문헌연구와 내용 분석을 연구방법으로 채택했고, 연구범위는 여자 테니스웨어로 국한하여 남자 테니스웨어는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본 연구는 Wimbleton 박물관(Wimbledon Lawn Tennis Museum)과 브루클린 박물관(Brooklyn Museum)의 소장품들 그리고 그랜드슬램(Grand Slam)이 포함된 4부의 테니스 경기진행도록¹⁰⁾과 테니스관련서적¹¹⁾, 복식사관련서적¹²⁾, 패션잡지¹³⁾ 자료들에서 여자 테니스웨어와 관련된 사진 혹은 회화들 중 각 시대의 스타일을 대표하거나 디자인 발전에 영향을 미친 사건의 근거가 되는 40개의 실증자료를 선별하여 이를 내용 분석했다.

II. 테니스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테니스의 어원과 기원

1) 어원

테니스(Tennis)의 어원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친다' 혹은 '때린다(hit)'라는 프랑스어 단어인 'Tenez'의 발음에 근거하며, 1360년경 영국에 소개되면서 '테니스(Tennis)'로 명명되었다고 본다¹⁴⁾. 또 다른 시각에서 역사학자 그림슬리(Grimsley)는 "초창기 테니스선수들이 골프의 표현인 'play away'와 동등한 관점에서 'to play'의 의미로 이 경기를 'Tennis'로 불렀다¹⁵⁾"고 설명한다. 이외에도 테니스(Tennis)의 어원에 관한 주장은 다양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처음으로 '테니스(Tennis)'라는 단어가 발견된 문서는 1400년경 헨리4세(1366-1413)에게로 보내지는 서신으로 다음과 같이 2가지 형식으로 인용되었다¹⁶⁾: "of the tennes to winne or lose a chace" 또는 "off the tenez to winne or lese a chace." 이 경기는 'play of tennis'라고 번역되는 'teniliudium'이라는 라틴계 파생어로 혹은 독일어 'tanz'의 공이 튀는 모습의 인용에 기인한 것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또한, 이 경기의 어원으로 믿기 어렵지만 1226년 바다로 침몰된 이집트 도시 '테니스(Tennis)'에서 유래되었다는 관점도 있다¹⁷⁾. 이집트의 도시 이름인 '테니스(Tennis)'는 옷감으로 유명한 곳이었으며, 이것은 초기의 테니스 공이 천을 사용하였다는 데서 착안된 것이라 한다¹⁸⁾.

2) 기원

테니스의 기원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지금부터 700-800년 전인 12-13세기의 놀이인 '쥬 드 뽀므(Jeu de paume)'가 많은 역사가들에 의해 근대 테니스의 전신으로 인정된다. 그립슬리는 "테니스의 모태인 '쥬 드 뽀므'는 프랑스의 귀족과 수사들 사이에서 성행했던 '라 뽀므(La paumm)'라는 볼 게임에서 유래되었다¹⁹⁾"고 설명한다. '뽀므(Paume)'란 프랑스어로 '손바닥'을 뜻한다. '라 뽀므'는 이후, 13-14세기 유럽에서 '쥬 드 뽀므'라는 '실내에서 공을 치는

게임'으로 발전한다. 이것은 원래 수도원에서 나이 어린 수사(修士)들이 소일거리로 만든 놀이였다²⁰⁾ <그림 1>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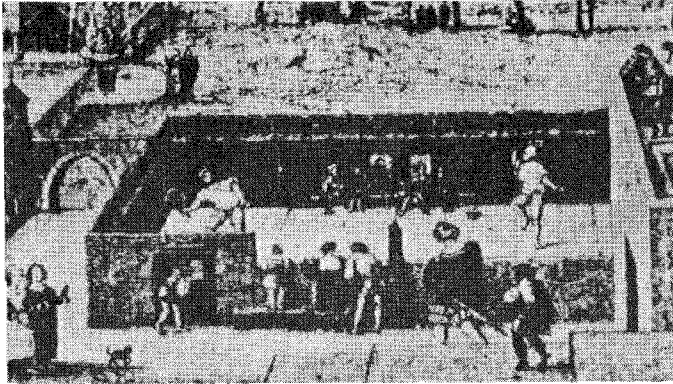
테니스는 프랑스에서 '쥬 드 뽀므'가 발명된 지 약 한 세기 후 영국에 도입되었으며, 이 경기는 프랑스와 영국 왕족 모두에게 사랑받았다. 실례로,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는 '테니스 방'이 있었고, 영국의 에드워드 3세(1327-1377)는 그의 궁 안에 테니스 코트 건설을 명하고 시민들에게 이 운동을 권장했다²²⁾. 또한, 나폴레옹1세는 테니스 애호가로 유명하며,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의 테니스 관람은 전통이 되었다. 하지만, 상류층의 문화적 상징으로 사교모임의 중심에 있었던 이 경기의 장소는 실내코트와 펜트 하우스의 개인 공간, 곧 높은 벽에 둘러싸인 특별한 공간으로 평민들의 접근이 통제됐다. 이러한 이유로 에드워드 3세의 바램과는 다르게 이 운동은 평민에게 외면당한다²³⁾. 20세기 중반까지 이 운동이 귀족운동으로 불리며 고정된 형식을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테니스의 기원은 손바닥을 사용한 구기 종목인 '뽀므'가 프랑스로부터 도버해협을 건너 영국으로 전해지면서 발전되어 근대 테니스의 형식을 구축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²⁴⁾.

2. 근대 테니스의 역사와 발전

1) 역사

근대 테니스의 역사는 1859-1865년 사이 해리 젤(Harry Gem)장군과 그의 친구 오그리오 페레라(Augrio Perera)가 바로크 전통공놀이인 '펠라타(Pelata)'²⁵⁾에 라켓을 접목시킨 새로운 구기 종목을 고안해 영국 버밍햄의 크로켓 구장에서 즐겼다는 것과²⁶⁾ 1873년 월터 크로프톤 윙필드(Walter Clopton Wingfield)장군이 자신의 저택 가든에서 열리는 파티를 위해 고안한 '스페어리스틱(Sphairistike)'²⁷⁾이라는 게임이 모태가 된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다²⁸⁾. 하지만, 이 두 가지 주장 중 근대 테니스의 길을 연 사람은 윙필드 소령이라는 측면이 더 많은 설득력을 얻



〈그림 1〉 1534년 테니스 코트의 전경
The Encyclopedia of Tennis



〈그림 2〉 Sphairistike' Court
The 75 Year of I.T.F.

고 있다.

윙필드 소령의 놀이인 '스페어리스틱'은 '공을 다루는 기술'이라는 그리스어(φάιριστική)를 모태로 하며, 그는 1873년 이 이름으로 새로운 게임의 특허를 신청했는데, 이것이 바로 근대 테니스의 원형인 '잔디 테니스(Lawn Tennis)'이다²⁹⁾. 소령은 테니스가 배드민턴을 주축으로 다른 라켓경기의 게임조합이라는 것을 발견했고, 친구들과 라켓과 공 그리고 경기장에 관한 연구를 거듭하여 이 게임을 상품화했다. 하지만, 윙필드는 테니스 경기를 규격화하는데 성공했으나, 이를 대중에게 유포시키는 데는 실패하며, 잔디 테니스의 아버지로 그 이름만을 역사에 남겼다³⁰⁾(그림 2)³¹⁾.

과학의 발전은 잔디 코트를 다양한 형태의 코트로 대체시켰고, 이는 테니스의 대중화를 가속화시켰다. 콘크리트와 하드 코트의 도입은 공의 바운드를 빠르게 하며 이 경기의 재미를 극대화시켰다.

근대 테니스의 발전 단계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²⁾: 첫째, 1874년 윙필드 소령이 코트(court)와 넷트(net)를 만들었다. 당시, 코트의 가운데가 잘록한 모양이었지만, 이는 근대 테니스의 가장 가까운 형식을 취한 것이다. 그는 테니스에 관련된 12개의 규칙을 정립하여 최초로 이 경기의 방식을 정리했다. 둘째, 1875년 메릴리본 크리켓 클럽(Marylebone Cricket Club)에 의해 테니스의 새로운 규칙들을 제정되고, 오늘날과 가장 유사한 테니스코트의 형식이 만들어

진다. 셋째, 1877년 올 인 그라운드 크리켓 클럽(All in Ground Cricket Club)이 '잔디 테니스(Lawn Tennis)'라는 명칭을 공식화하고, 제1회 전 영국 선수권 대회를 Wimbleton(Wimbledon)에서 개최하는데, 이것이 현재 Wimbleton 대회의 효시이다. 이를 계기로 크고 작은 국제 대회가 개최되기 시작했다(그림4). 넷째, 1896년 아테네에서 개최된 제1회 근대 올림픽대회에서 테니스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이 경기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근대 테니스의 형식을 완성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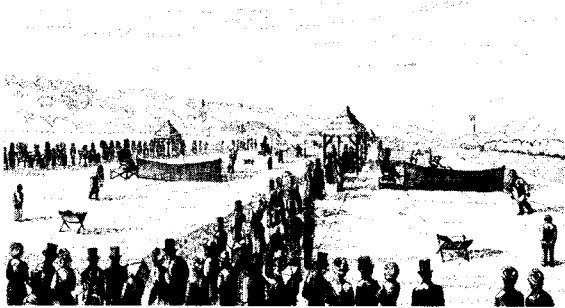
2) 발전

테니스는 귀족사회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서서히 대중에게 전파된다. 1877년 Wimbleton(Wimbledon)을 시작으로 1881년 전미 선수권대회(US Open), 1891년 프랑스 오픈(France Championship) 그리고 1905년 호주 오픈(Australia Open)이 창설되어³³⁾, 20세기 초 테니스는 이미 그랜드 슬램(Grand Slam)의 틀을 구축하며 현대화의 기반을 다진다(그림 4). 1910년대에는 크리켓 클럽에서 벗어난 독립적 테니스 클럽들이 생겨났고, 1920년대에 이르러 주요국제연맹들이 설립되면서, 이 경기는 대중에게 전파되기 시작한다(표 1).

테니스는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 과격한 운동을 싫어하는 'sissy(계집애 같은 사내 아이)'들에게 초차 인기가 있는 대중운동이 되었으나, 라켓을 든 젊은이들을 거리에서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왜냐하면, 테니

〈표 1〉 연도별로 본 현대 테니스의 발전

연도	현대 테니스의 발전 과정
1877년	제1회 전 영국 선수권 대회를 윔블던 (Wimbledon)에서 개최
1881년	전미 선수권 대회 (US Open Championships) 창설
1891년	프랑스 오픈 (French Championship) 개최
1896년	제1회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 (1924년 8회까지)
1900년	미국 보스톤에서 데이비스 컵 대회 (Davis Cup) 창설
1905년	전 호주 선수권 대회 (Australian Open) 창설
1913년	국제 테니스 연맹(the International Tennis Federation) 설립
1924년	국제 론 테니스 연맹 (the International Lawn Tennis Federation)이 공식 경기 규정 발표
1926년	미국 프로테니스 시작
1927년	USPTA (United State Pro-Tennis Association) 조직
1963년	영국 런던에서 제1회 페더레이션 컵 (Federation Cup) 개최
1973년	WTA (the Women Tennis Association) 조직
1974년	WIPTC 조직, ATP (the Association of Tennis Professionals) 컴퓨터 랭킹 시스템 도입
1988년	제24회 서울 올림픽에서 64년 만에 다시 정식종목으로 채택
1990년	ATP (the Association of Tennis Professionals) TOUR대회 창설



〈그림 3〉 제1회 LAWN 테니스대회, 1877년, Wimbledon
The 75 Year of I.T.F.



〈그림4〉 제5회 U.S. OPEN 테니스대회의 결승전
풍경, 1885년 The 75 Year of I.T.F.

스는 귀족 스포츠라는 이미지를 고수하며, 클럽 등에서 펼쳐지는 격식 있는 운동의 대명사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1877년 윔블던에서 복식규정이 확립된 이후, 격식을 중요시 여기는 이 운동을 즐기기 위해 선수들은 반드시 흰 옷만을 입어야 했다. 관람객들은 시대에 뒤쳐지는 감각을 필두로 예의만을 따지는 스포츠라는 이유로 테니스를 비웃었고, 0점을 'love'라 표현하는 테니스의 규칙을 비아냥거렸다. 그러나 일체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금기시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이후, 이 게임은 점차 까다로운 규칙을 조금씩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당시 세계적 테니스 스타 가드너 몰로이(Gardnar Mulloy)는 격식

만을 차리며 잘난체하는 무능한 사람들의 관습을 이 스포츠 세계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³⁴⁾.

테니스는 20세기 중반까지 '백색스포츠(white sport)'로 불렸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³⁵⁾: 첫 번째는 '인종적' 의미이다. 1957-8년 미국의 흑인 여자 선수인 아시 김슨(Arcee Gibson)의 윔블던 우승과 1968년 미국 흑인 남자 선수인 아서 애쉬(Arthur Ashe)의 US Open 우승 전까지, 이 운동은 오랫동안 백인들의 전유물이었다. 이 운동의 폐쇄성은 1960년대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법으로 '흑인이 테니스를 치는 것을 금지'한 것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다른 하나의 의미는 '복식규정'에 관한 것이다. 1877년 윔블던(Wimbledon)과 포레스트 힐(Forest Hill)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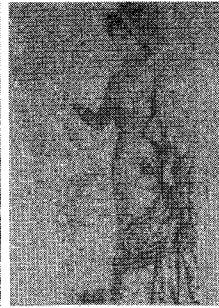
<그림 5> Brown Color Tennis Wear, 1879 Wimbledon Lawn Tennis Museum



<그림 6> Victorian Tennis Player, 1883 Wimbledon Lawn Tennis Museum



<그림 7> 영국 레밍턴 클럽 제1회 대회 사진, 1880 The Encyclopedia of Tennis



<그림 8> Lawn Tennis Wear, 1881 Victorian Fashions and costumes from Harper's Bazar, 1867-1898



<그림 9> 스케치, 1886년 The 75 Year of I.T.F.

처음 시작된 이래로 1968년까지 이 경기를 즐기기 위해서는 '백색(白色) 의상'만을 입어야했다. 테니스웨어는 모자에서 의상, 신발, 양말까지 모두 백색으로 제작되어지는 것이 불문율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1968년 미국의 데이비스컵 출전 팀이 노란 셔츠를 착용함으로써 이 전통은 파괴된다. 비 유동적인 이 운동의 불필요한 규제들은 60년대에 이르러서야 완화되기 시작한다.

20세기 중반 여자 선수들이 발목까지 오는 긴 치마대신 서브를 넣을 때마다 보이는 레이스나 수가 놓인 속옷을 입어 섹시미를 발산하는 동안, 남자 선수들은 그들의 긴 플라넬(Flannel) 바지를 허벅지가 드러나는 반바지로 바꾸어 착용하며 남성미를 발산했다.

테니스는 스피드와 인내 그리고 기초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경기였다. 20세기 초 여성적 운동으로 인식되었던³⁶⁾, 이 경기는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더 이상 이것이 여성들만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는 것을 대중에게 보여준다. 실내·외에서 모두 운동이 가능하고, 골프보다 저렴하며, 품위까지 유지시킬 수 있었던 이 게임은 이후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으로 발전해 나간다. 1960년대 후반 미국의 테니스 인구는 900만 명을 넘었으며, 이미 세계적으로 5천만의 인구가 테니스를 즐겼고³⁷⁾, 지금까지 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나가고 있다.

3. 근대 테니스복식

19세기 후반 귀족들은 사교복을 입고 테니스를 즐겼다. 1870년대 초까지 이들은 복식에 구애받지 않고 이 경기를 즐겼으나, 1877년 Wimbledon 이후 복색이 백색(白色)으로 규제되면서 백색의상을 입고 경기에 임하는 것을 전통으로 여겼다. 이후, 1870년대 후반까지 볼 수 있었던 유색(有色) 의상들은 점점 사라지고, 1880년대에 이르러 사교장에서도 백색(白色) 경기복이 일반화된다<그림 5>³⁸⁾. 또한, 스포츠를 위한 테일러드 슈트가 영국중심으로 개발되고, '테니스 슬리퍼(Tennis Slippers)' 혹은 '운동화'의 착용이 여성에게 허용된다³⁹⁾. 복색에 관한 규칙이 정립되었으나, 당시 테니스웨어는 여전히 사교복의 연장선에서 스타일이 조금 변형된 것이었다. 영국의 빅토리아(Victoria)지역에서는 장식적 측면과 더불어 경기도중 스커트의 움직임에 제한하기위해 기능적 측면이 고려된 은 벨트가 드레스 위에 착용되었다<그림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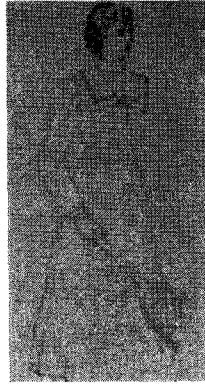
이 시기 보편적 테니스웨어의 스타일은 스커트 길이가 긴 맥시 스타일(maxi style)이다. 이 롱 스커트는 게임에 스피드가 붙으면서 길이가 약간 짧아졌고, '꽃으로 장식된 모자,' '블라우스,' 그리고 '발목길이스커트'의 착용이라는 투피스 스타일(two-piece style)을 여자 테니스웨어의 기본형으로 정착시킨다. 비록 기능성을 이유로 스커트길이는 이전보다 짧아졌으나, Wimbledon은 여자 선수들에게 나무끼는 치마 속에 페티



〈그림 10〉 Lottie Do, 1887
The Encyclopedia of Tenn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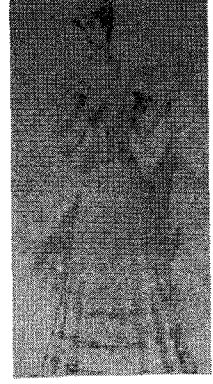
〈그림 11〉 Maud Watson, 1884
The 75 Year of I.T.F



〈그림 12〉 원피스 형 테니스웨어, 1895
Brooklyn Museum



〈그림 13〉 Gigot Sleeve와 Bolero Jacket, 1896
Victorian Fashions and costumes from Harper's bazar, 1867-1898



〈그림 14〉 1893년 테니스웨어
Victorian Fashions and costumes from Harper's Bazar, 1867-1898

코트를 입을 것을 권고했고, 치마의 길이가 땅에서 2 인치 이상 올라가는 것을 불허했다⁴⁰⁾. 꽃으로 장식된 버슬 스타일(bustle style)이 공존하는 가운데, 1880년대에는 활동성을 높인 주름 스커트에 자수가 놓인 앞치마(apron)를 착용하는 것이 크게 유행했다(그림 7, 8⁴¹⁾, 9). 또한, 1887년과 1888년 워털던 최연소 우승자인 로티 두(Lottie Do)는 현대식 테니스 라켓과 새로운 의상을 선보이며 주목 받았다. 그는 당시 다른 선수들이 입었던 의상보다 짧은 스커트를 착용하여 스커트 길이가 경기 결과에 주는 영향을 증명했다(그림 10). 하지만, 스커트 길이 변화에 민감했던 당시 시대상은 이 스타일의 유행을 제한시켰고, 이후 테니스웨어는 상의를 중심으로 단순화된다. 실례로, 1884년 모드 와트슨(Maud Watson)여사가 착용한 테니스웨어는 불필요한 장식을 배제하고 실루엣을 정리하여 단순미의 극치를 보여준다(그림 11). 1890년대에는 세일러 컬러의 원피스 형 테니스웨어가 등장했고, 지곶소매(gigot-sleeve)⁴²⁾, 볼레로재킷(bolero-jacket) 그리고 발목길이스커트가 1880년대에 이어 유행 아이템으로 그 명맥을 이었다(그림 12⁴³⁾, 13). 또한, 세 줄의 붉은 능직(綾織)으로 바이어스 단을 대어 장식한 S. 레터(Letter) 실루엣 위에 재킷을 입은 스타일도 보인다(그림 14).

당시 예술과 문화 전반에 퍼져있던 아르누보(Art Nouveau)양식은 버슬(bustle)과 같은 복식의 버팀틀을 없애 장식과 부피감을 감소시키며 테니스웨어 단순화에 힘을 더했다.

Ⅲ. 20세기 여자 테니스웨어 디자인 특성

20세기 초 메이저 경기들이 생겨나면서 경기의 규칙이 구체화되기 전까지 테니스웨어는 백색(白色)만을 고집하지 않았다. 19세기말까지 테니스웨어는 또 다른 형태의 사교복에 불과했다. 하지만, 즐기는 운동에서 보는 운동으로 유희의 방식이 변하고, 이미 귀족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격식을 중시했던 이 운동은 1877년 워털던 대회에서 복색규정이 정립된 이후 20세기 중반까지 복색에 제한을 두어 '화이트 테니스웨어(White Tennis Wear)'를 강요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속에서도 기능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테니스웨어의 단순화는 지속되었다.

본 장에서는 40개의 사진 혹은 회화 자료를 10년 단위로 구분하고 이를 분석하여, 20세기 여자 테니스웨어의 각 시기별 디자인 특성을 추출한다.

1. 1900년대

사교복과 스포츠웨어의 혼재를 보인 1900년대 테니스웨어는 그랜드 슬램⁴⁴⁾이 정립되면서 사교복 형식을 탈피하며 스포츠웨어 형식을 구축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다. 근대에 비해 이 시기 테니스웨어는 확실히 간소해졌다. 그 첫 단추는 1905년 블라우스 소매를 걷어 올려 경기에 임하여 당시로서는 파격적 스타일을 연출한 미국 선수 메이 스타인(Miss May Stein)이 끼웠다⁴⁵⁾.

이 시기 가장 두드러진 두 가지 변화를 든다면, 그것은 '관람복과 경기복의 분리'와, '미디스커트(midi-skirt)의 출현'이다. 첫 번째 변화는 1905년 L. Metlicovitz에 의해 제작된 포스터에 나타난다(그림 15)⁴⁶⁾. 당시 사교장의 풍경을 그려낸 이 포스터 속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4명의 여인들은 모두 1890년대의 유색(有色) 사교복, 곧 당시 평상복(day wear) 스타일로 유행한 지긋소매(gigot-sleeve)⁴⁷⁾의 드레스를 착용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에 임하는 여인들은 백색의 의상을 착용했다. 의상의 실루엣의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이 시기 경기복의 복색은 관람복과 명확히 구분되며 규칙을 지켜나갔다. 두 번째 변화는 맥시(maxi) 스타일의 주류 속에 미디스커트(midi-skirt)가 출현했다는 것이다. 워블던에서 7회나 우승한 랜버어트(Mrs Lambert)부인은 경기의 효율성과 스커트의 상관관계를 미디스커트 통해 다시 한 번 증명했다(그림 16). 그림에도 불구하고, 워블던은 맥시길이의 백색 스커트와 단추로 처리된 소매와 칼라(collar)가 있는 백색 블라우스로 구성된 심플한 스타일을 새로운 테니스웨어의 기본형으로 제시한다(그림 17)⁴⁸⁾.

2. 1910년대

1910년대 클럽중심의 테니스문화는 유니폼 형식일 때 스포츠웨어를 출현시켰고, 이 스타일은 여성복의 현대화에 영향을 주었다. 이전 시대에 이어 모자는 테니스웨어의 기본착장에 포함되었고, 단순화된 재킷, 카디건, 개더스커트(gathered skirt) 그리고 타이(tie)가 이 대열에 합류했다.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으로 인한 물자부족은 스커트 길이에 대한 논의를 잠식시키며, 미디스커트의 유행을 받아들인다. 또한, 1910년대 후반에는 모자를 대신하는 터번(turban)이 등장하여 헤드밴드(headband)의 개념이 처음 생겨났다(그림 18).

1910년대 테니스웨어의 특징은 '클럽 스타일(club style)'의 발전과 '카디건,' '개더스커트' 그리고 '타이(tie)'라는 새로운 아이템들의 출현이다. 이전시대에 사교를 위한 도구였던 테니스는 이 경기를 중심으로 새로운 모임들을 결성하며 클럽 스타일을 창조한다. 테니스가 중심인 이 모임들에서 경기의 재미와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기능적 스포츠웨어는 화두가 되었고, 그 결과 이전과는 차별화된 '기능성을 위한 단순성'이 그들만의 스포츠웨어에 적용되었다. 실례로, 뉴욕의 실내 테니스 클럽인 레지몬트 아모리 클럽(Regimont Armory Club)의 회원들은 화이트 블라우스와 미디스커트에 카디건을 맞추어 입고 목에는 넥타이를 매어 자신들만의 스타일을 완성시켰다⁴⁹⁾. 이들은 개성에 따라 벨트를 선택적으로 착용했다. 몇 해 전 소개된 '미디스커트'는 당시 최신 유행 아이템으로 급부상했고, 이후 테니스를 즐기는 여성들의 맞춤형의 상품목에 항상 포함되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스타일을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테니스 애호가들은 기능적이고 새로운 스타일을 완성시키는 이 스커트에 열광했다. 타이와 함께 카디건 그리고 개더스커트는 이 시기 새롭게 제시된 또 다른 유행 아이템이다. 허리에 주름을 넣은 미디길이의 스커트는 경기의 결과를 향상시켰고, 경기 전후 착용된 컬러 카디건은 줄무늬 재킷과 함께 단조로운 스포츠웨어의 지루함을 씻어 주었다(그림 18)⁵⁰⁾. 무용수 아이린 카스틸(Irene Castil)은 실크 블라우스에 블랙타이를 매고 미디길이의 활동성이 고려된 개더스커트 위에 이중벨트로 코디네이션 하여 이 경기를 위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었다(그림 19)⁵¹⁾. 긴소매 블라우스에 타이를 매고, 미디스커트로 기본 착장을 갖춘 웨스트사이드 테니스 클럽(Westside Tennis Clup)의 회원들은 기본 착장 위에 가디건 혹은 재킷 혹은 조끼를 덧입어 클럽스타일 속의 개성을 표현했다(그림 20).

3. 1920년대

1921년 테니스웨어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폭풍을 만난다⁵²⁾. 그것은 여자테니스계의 신화로 불리는 프랑스의 수잔 령겐(Suzanne Lenglen) 선수와 패션 디자이너 장 파투(Jean Patou, 1880-1936)의 등장이었다. 머리에 터번을 두르고 파투가 디자인한 팔이 드러나는 소매(bare arm)의 무릎길이(knee-length)의 실크 주름스커트로 구성된 원피스를 입은 령겐은 워블던에서 관객의 시선을 집중시켰다⁵³⁾(그림 21)⁵⁴⁾. 스포츠웨어의 불필요한 장식을 없애고 기능성을 위해 어깨와 목을 해방시킨 파투는 1929년 “테니스웨어의 스커트 길이는 짧다”라는 원칙을 스스로 공표하며, 이 스타일을 대중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전의 테니스웨어의 스타일에 비추어 볼 때, 령겐이 착용한 아이템들은 실로 충격 그 자체였다⁵⁵⁾. 세련되고 과감한 파투의 의상은 멋있는 령겐의 경기 모습과 어우러져 령겐을 테니스코트장의 발레리나로 만들었다. 독특한 이 스타일은 경기장 안팎에서 화제를 모았고, 보그를 비롯한 패션매체들은 령겐을 모델로 기용하며 이 새로운 스타일을 앞 다투어 소개했다. 파투와 령겐의 공조는 테니스웨어 발전에 커다란 획을 그으며 령겐 스타일을 남겼다⁵⁶⁾.

개인의 취향에 따라 리본이나 벨트를 장식한 기능이 고려된 심플한 원피스 형 스타일이 트렌드를 주도한 1920년대 테니스웨어는 터번과 메이크업을 통해 컬러를 표현하며 백색(白色) 경기 복이 주는 단조로움을 탈피하려고 노력했다(그림 21, 22). 팔이 드러나는 무릎길이의 원피스, 조끼 그리고 컬러풀 터번까지 령겐이 입은 모든 의상은 새로운 유행 아이템에 추가되었다(그림 21). 컬러풀한 터번형 헤어밴드는 테니스코트를 밝혔고, 멋있게 열려진 카디건과 조끼의 스타일리쉬한 착용모습들은 급속도로 확산되며 대중들에게 새로운 트렌드로 각인되었다. 프랑스의 멜리(Meli) 그리고 에드아노(Edeanor)선수도 터번형 헤드밴드, 주름스커트를 착용하여 령겐의 스타일을 추종했다. 프랑스에 수잔 령겐(Suzanne Lenglen)이 있었다면, 미국에는 헬렌 윌스(Helen Wills)가 있었다. 령겐이 새로운 스타일로 대중들을 사로잡고 있는 동안, 윌스 역시 자신만의 스타일을 선보이며 대

중들에게 다가갔다. 령겐이 컬러풀한 헤어밴드와 카디건으로 유행을 주도하였다면, 윌스는 컬러풀한 아이 메이크업으로 대중들의 시선을 끌었다. 캡(cap)소매, 무릎길이의 스커트를 입고 백색 스타킹을 신은 윌스의 깔끔한 스타일은 언제나 화려한 메이크업으로 시선을 집중시키며 마무리되었다. 또한, 1927년 워블던 우승당시 그는 백색 스타킹대신 양털로 만들어진 양말을, 1928년에는 혁신적인 스포츠 캡(cap) 모자를 선보인다(그림 23). 이후, 양말은 스타킹을 대신하는 최신 아이템이 되어 인기를 얻었다(그림 24).

4. 1930년대

령겐(Lenglen)의 카디건과 헤드밴드 그리고 윌즈(Wills)의 아이 메이크업과 양말은 이제 테니스 경기를 위한 필수 아이템이 되었다. 여전히 슬림한 실루엣이 유행하는 가운데 개성적 스타일들이 개인의 취향을 반영했다.

1930년대 테니스웨어는 다양한 스타일이 시도되고, 또 이 스타일이 함께 공존한 과도기이다. 1932년 보그는 여전히 여성적 실루엣이 돋보이는 령겐 스타일에 양말을 착용하는 것을 감각 있는 여성들을 위한 테니스웨어로 제안한다(그림 25). 반면, 1934년 영화 ‘Good bye to suspenders!’에서는 긴 양말을 신고 니트 티셔츠에 스커트대신 팬츠를 입은 여배우의 스타일을 제시하며, 팬츠를 새로운 테니스웨어의 아이템으로 소개한다. 여배우가 입은 팬츠의 길이는 무릎 바로 위로 무릎길이(knee-length)스커트의 길이보다 조금 더 짧은 것이었다(그림 26)⁵⁷⁾. 여전히 무릎길이의 스커트가 유행했으나, 발목길이스커트, 미디스커트, 무릎 위의 짧은 스커트까지 착용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이 나타났고, 짧은 양말은 스타킹의 위치를 완벽히 물려받았다(그림 27).

1936년 워블던 대회에서는 령겐 이후 또 다른 변화가 시도된다. 그것은 출중한 외모의 소유자인 미국의 헬렌 자코브(Helen Jacob)선수가 ‘쇼츠(Shots)’를 입고 곡선미를 과시하며 경기에 출전한 것이었다. ‘핫팬츠’ 스타일의 ‘쇼츠’는 현재까지도 여자 테니스 선수의 경기복으로 이용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⁵⁸⁾, 당시 이 사건의 파장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쇼츠’

는 유행을 주도하지 못했으나, 13년 후 미니스커트를 현대 테니스웨어의 기본 아이템으로 정착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팬츠의 등장은 트랙 팬츠(Track Pants)의 출현을 가능하게 만들며, 전문적 기능복의 요소를 갖춘 테니스웨어의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⁵⁹⁾.

5.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은 여가활동을 위축시키며 사람들에게서 스포츠를 분리시키는 듯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도 테니스에 대한 대중들의 열정을 완전히 꺾어 놓을 수 없었다. 이전시대 다양한 스타일들을 경험한 40년대 고객들은 이 운동을 위해 좀더 짧은 스커트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고, 취향에 따라 원피스 혹은 투피스 스타일을 선택적으로 착용했다. 전쟁이후, 13년 전 파장을 일으켰던 자코브(Jacob)의 '쇼츠(Shots)'의 위력⁶⁰⁾은 1949년 영국의 테드 틴링(Ted Tinling, 1910-1990)에 의해 빛을 바란다. 이 디자이너는 20cm가 넘지 않는 스커트 속에 레이스가 달린 팬티를 착용시켜 새로운 스타일을 완성해 냈다.

스커트의 길이부터 캡 모자까지 현대 테니스웨어의 기본 스타일은 1940년대에 정립된다. 이전에 비해 급속도로 짧아진 스커트는 무릎위로 그 길이가 올라가며 경기의 능률을 향상시켰다. 실제로, 40년대 초 메리 하드 위크(Ms Mary Hard Wicke)와 마블(Miss Marble)선수의 테니스웨어를 보면, 스커트와 팬츠의 길이가 현재의 경기복과 비슷한 수준으로 짧아진 것이 확인된다<그림 28>. 메리 선수는 스커트 위에 바이어스라인으로 처리된 조끼를 입었고, 마블 선수는 팬츠위에 카디건을 착용했다<그림 28>. 캡 모자의 기본 스타일 역시 이 시기에 정착된다<그림 29>. 테드 틴링의 디자인을 입은 미국의 갓시 모란(Gussie Moran)선수는 짧은 스커트 밑에 레이스가 달린 팬티를 입어 테니스 패션을 주도한다<그림 30>⁶¹⁾. 경기 중 스커트 밑으로 보인 이 레이스 팬티는 테니스웨어 역사에 획을 그은 역사적 아이템으로 기록되며, 1949년을 특별한 해로 만들었다. 그 자신이 테니스 선수였던 틴링은 이 사건으로 선수의 길을 접고 디자이너의 세계로 들어섰고, 이후 1970년대까지 수많은

은 테니스 패션스타일을 창조했다⁶²⁾.

6. 1950년대

생활이 여유로워질수록 스포츠웨어의 판매는 급증했고,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스타일의 요구로 이어졌다. 이전시대 이미 스커트길이에 대한 논쟁을 승리로 이끈 기능적 스포츠웨어는 심미적 가치를 중시하며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어나간다.

1950년대는 1949년 테니스 패션의 기본형이 정립된 후, 트렌드의 개념이 도입된 다양한 스타일의 디자인이 출현된 시기였다. 기능적이면서 여성스러움을 잃지 않은 테드 틴링(Ted Tinling)의 디자인이 테니스 패션을 주도하는 가운데, '페미닌(feminine)'은 여성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테니스웨어의 트렌드로 부상한다. 1950년대 초 미국의 한센(Miss G. Hansen)선수는 몸의 라인이 그대로 드러나는 스판 소재 슬리브리스(sleeveless)에 레이스가 트림된 플레어스커트(flare skirt)를 입어 섹시미를 발산시키며, 다시 한번 틴링의 입지를 다져주었다<그림 31>. 또한, 이 시기 '헤어 넷(hairnet)'과 '핸드밴드(handband)'가 착용되기 시작한다⁶³⁾.

테니스의 경기내용이 주는 즐거움과 더불어 페미닌 한 여자 테니스웨어는 대중의 심미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이 스포츠에 또 다른 매력을 제공했다.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하듯 보그(Vogue)지는 테니스웨어의 유행스타일을 분석하여 액티브 스포츠웨어에 트렌드의 개념이 도입되고 있음을 증명했다⁶⁴⁾. '슬리브리스 원피스'의 강세 속에 '올인원(all-in-one)팬츠' 스타일이 유행 아이템의 대열에 합류한다<그림 32, 33>. 허리와 팬츠의 헴라인(hemline)이 고무줄로 처리된 올인원팬츠는 깔끔하고 세련된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했고, 앞여밈이 지퍼로 처리된 실용성을 높인 주름 원피스는 기능성과 심미성을 모두 만족시켰다<그림 33, 34>. 사각 넥라인에 슬릿이 들어간 독특한 원피스, 세일러 스타일의 포폴린 블라우스와 신축성 있는 소재를 허리에 사용한 주름스커트, 와플 모양의 텍스처어 원단을 이용하여 제작된 하이 스퀘어넥라인 그리고 엉덩이 선부터 볼륨이 있는 스커트까지 이 다양한 아이템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여성의 매력을 표현해냈다(그림 35, 36). 또한, Vogue는 백색의 단조로움을 탈피하기위해 경기장 밖에서 포인트 줄무늬가 허리, 팬츠 그리고 양말의 디테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제안했다⁶⁵).

7. 1960년대

스트리트 패션의 유행은 '트레이닝 복'과 '테니스화'를 1960년대 패션의 보편적 아이템으로 정착시켰고⁶⁶, 미니스커트는 당시 최고의 유행스타일이 되었다. 대중들은 스포츠웨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앙드레 큐레주(André Currèges)⁶⁷, 앤 클라인(Ann Klein), 조오지오 산트 안젤로(Giorgio Sant Angelo), 헬스톤(Helston), 피에르 가르탱 (Pierre Cardin), 입생 로랑(Yves Saint Laurent) 같은 유명 디자이너들은 스포츠를 패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며 액티브 스포츠웨어 사업에 뛰어들었다. 스트리트 스타일의 영향으로 아다다스(adidas)의 운동화인 '슈퍼스타(Super Star)', '스탄 스미스(Stan Smith)', '컨츄리(Country)' 라인은 패션 스타일을 완성시키는 유행아이템이 되었다⁶⁸.

이 시기 일어난 대중 테니스의 붐은 전문 선수가 아닌 동호인들을 위한 클럽을 발전시켰고, 스타일리스트의 출현으로 코디네이션의 개념이 스포츠웨어에 도입되면서 이들은 보다 더 패션너블한 테니스웨어의 연출을 즐겼다. 화이트 밍크로 만든 슬리브리스와 스커트를 매치한 테니스웨어의 실루엣은 파티복을 연상시켰고, 이 스타일은 가로 줄무늬가 들어간 실크 스타킹으로 코디네이션 되면서 스포츠웨어의 패션화가 보편적 현상임을 증명했다(그림 37). 당시 보그(Vogue)는 이 의상을 두고서 "테니스를 위한 사교(house)모임에서 착용하면 자신을 돋보이게 할 훌륭한 의상⁶⁹"이라고 격찬했다. 미니스커트가 유행한 1960년대는 테니스웨어와 평상복의 구분이 모호해진다. 1968년 미니스커트형 원피스는 워블던 대회에서 가장 유행하는 선수복 스타일이 된다(그림 38⁷⁰, 39). 또한, 테니스웨어의 트리밍을 중심으로 파스텔 컬러가 조심스럽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원피스의 헴라인(hemline)에는 플리츠된 컬러원단이 트리밍되고, 앞 중심을 기준으로 컬러원단이 바이어스로 디테일

처리되었다(그림 38, 40).

1968년 테니스웨어의 '백색으로부터 해방'을 위한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다. 그것은 미국의 데이비스컵 출전 팀이 노란 셔츠를 입음으로서, 80년간 유지되었던 테니스의 복색규제전통을 무너트린 것이다. 이후, 비 유행적인 이 운동의 불필요한 규제들은 60년대 흑인선수들의 출현과 복색 규정의 위반을 시작으로 서서히 완화되기 시작한다.

8. 1970년대

하위문화의 상위문화 진입을 성공시킨 1970년대의 패션은 스포츠웨어를 새로운 패션 트렌드의 범주로 인정한다. 테니스웨어에서 2년 전 나타난 '화이트로부터의 탈피선언'은 자연스럽게 컬러사용으로 이어졌으며, 이 혁명은 자유로운 스타일을 창조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60년대에 이어 원피스가 계속 유행했으나⁷¹, 새로운 시대는 개인의 취향을 더욱 중시했고, 이전의 여자 테니스웨어에서 볼 수 없었던 남성적 스타일을 여자선수들에게 허용했다. 톤링(Tinling)은 70년대에도 선수들을 위해 계속해서 테니스웨어를 디자인했다⁷²(그림 41). 1970년 전미 선수권대회(US Open)에서 테니스 복식사의 획을 그은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다. 그것은 스웨덴의 인그리드 벤자(Ingrid Benza)선수가 시스루(see-through)에 구멍이 뚫린 테니스웨어를 입고 경기에 출전했다 퇴장 당한 것이다⁷³. 이 사건은 귀족정신으로 뭉쳐져 있는 보수적 테니스계에 파문을 일으켰으나, 이후 선수들의 노출을 독려하며 테니스웨어의 패션화 바람에 선구적 역할을 담당했다⁷⁴. 이는 1949년 갓시 모란(Gussie Moran)이 짧은 스커트에 레이스 팬티를 입고 경기에 출전했던 사건 이래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선구자 모란은 1971년 이러한 형태의 의상이 폭발적 인기를 누리자 정작 자신은 깔끔하고 심플한 의상을 입어서 팬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⁷⁵.

'복색규제타파'는 컬러뿐만 아니라 여성적 스타일에 국한되었던 테니스패션의 패턴을 무너트리며, 다양한 스타일의 경험을 가능하게 만든다. 여성스러운 크리스 에버트(Chris Evert)와 남성미를 발산하는 나

브로틸로바(Navrotilova)는 이 시기를 대표하는 여자 테니스선수들이다. 에버트의 외모와 의상에는 언제나 여성스러움이 넘친 반면, 남성적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심플한 의상을 착용한 나브로틸로바는 에버트와는 상반된 이미지를 발산하며 대중을 사로잡았다. 에버트는 레이스가 트리밍 된 라운드 네크라인의 슬리브리스 원피스에 레이스 팬터를 입어, 팔과 다리 모두를 노출시켰다. 또한, 헴라인(hemline)에 그린과 블루컬러로 프린팅 처리된 원피스를 입었고, 헤어밴드와 양말의 컬러까지 의상과 통일시켜 완벽한 코디네이션을 연출했다(그림 42). 반면, 나브로틸로바는 컬러 프린팅 된 기본 셔츠에 세로선이 파이핑(piping) 된 심플한 스커트를 입었다(그림 43). 이 시기 이들 이외에도 이반 굴라공(Evonne Goolagong) 선수는 네크라인과 소매, 단추 그리고 스커트 단(hemline)이 오렌지 컬러로 강조된 화이트, 오렌지 콤비 원피스를 입었다. 플리츠된 원단으로 트리밍 처리된 이 원피스는 여성미를 발산한다(그림 41). 반면, 여성운동가였던 미국의 낸시 리치(Nancy Richey) 선수는 스커트 대신 짧은 팬츠를 경기복으로 선택하며, 남자선수들의 스타일을 추종했다(그림 44). 또한, 호주의 마가렛 코트(Margaret Court) 선수는 유행스타일을 거부하고 언제나 브이넥셔츠에 스커트와 같은 심플한 경기복을 착용하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갔다.

면과 합성섬유 비닐론의 혼합은 구김을 최소화시키는 새로운 원단인 라이크라(lycra)의 레오타즈(leotards)⁷⁶⁾가 탄생되어 스포츠웨어의 발전에 기여한다. 땀의 흡수가 빠르고 동시에 쾌적한 착용감을 주는 이 원단은 스포츠웨어의 기능성이 디자인발전에서 소재발전으로 전환되었음을 알려주었다. 겹점으로 포인트된 네크라인에 배트윙 슬리브(bat-wing sleeve) 상의 그리고 레드 버튼으로 장식된 타이트한 플레이어스커트는 새로운 원단이 패션어블한 디자인에 활용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그림 45). 라이크라, 폴리우레탄과 같은 스포츠만을 위해 개발된 고성능 직물들은 이제 평상복디자인에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며 빈번히 사용되었다.

9. 198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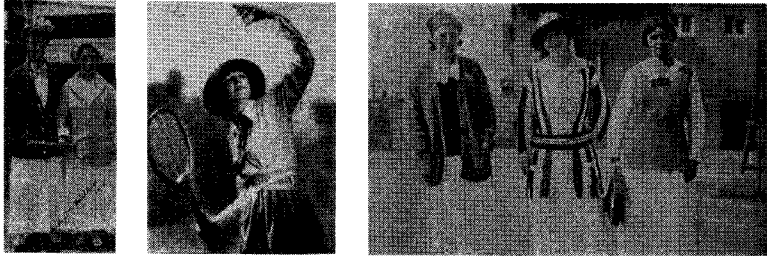

개인부탁의 시대를 지나 대중 브랜드 시대를 연 80년대 패션의 과시욕은 브랜드로고를 새로운 디자인모티브로 올려놓는다. 이러한 현상은 아디다스(adidas), 나이키(Nike), 필라(Fila)와 같은 스포츠브랜드가 경기복에 로고를 수놓아 스포츠 마케팅의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패션브랜드의 그늘아래서 소극적으로 발전해온 이 액티브 스포츠웨어 브랜드들은 이를 계기로 그 위상이 높아졌다. 실례로, 이러한 환경은 1971년 나이키(Nike)사의 트레이드마크인 스우시(Swoosh)가 탄생된 이후 10년 만에 이 스포츠 브랜드를 세계 40여국에 전파시켰으며, 1949년 세 줄의 스트라이프를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워 현대 스포츠 브랜드의 형식을 구축한 아디다스(adidas)를 최고의 액티브 스포츠웨어 브랜드로 만들었다.

다가올 컴퓨터 시대에 발맞추어 테니스웨어는 구성적 선 혹은 면이 가미된 기하학적 디자인이 선호되었고, 그곳에는 언제나 스포츠 브랜드의 로고가 함께 했다(그림 46, 47⁷⁷⁾). 또한, 미국선수들이 자국의 국기를 모티브로 유니폼을 디자인하면서, 국가단위 경기에서 자국 국기를 테니스웨어 디자인에 적용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나갔다. 1988년 서울 올림픽에 출전한 미국 여자선수들은 국기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유니폼을 입어 관객의 시선을 집중시키며, 복식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그림 48). 국가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기호학적 스포츠웨어는 대중들의 애국심을 자극하며 당시 스포츠웨어의 트렌드를 주도했다. 경기장에서 컬러풀한 테니스웨어는 이제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원피스 혹은 셔츠와 스커트라는 공식은 선수들의 취향에 따라 유행성을 지녔다. 1982년 팜 슈라이버(Pam Schreiber) 선수는 셔츠 위에 조끼를 입고 스커트대신 팬츠로 착장을 맞추어 경기에 출전했다(그림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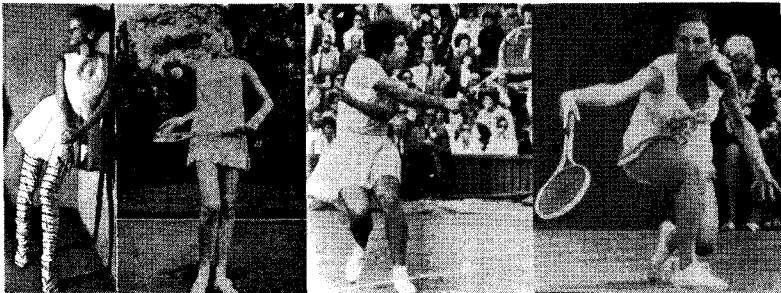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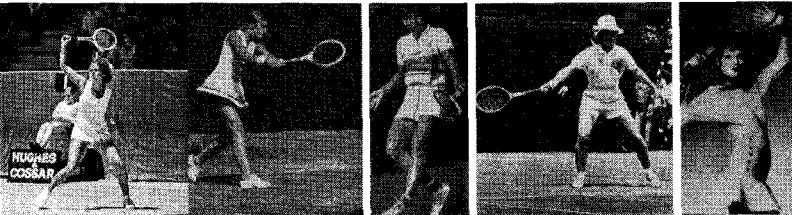

10. 1990년대


패션이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장악하기 시작한 90년대에 이르러, 패션하우스들은 앞 다투어 스포츠웨

<표 2> 20세기 여자 테니스웨어의 시대별 디자인 특성

년대	테니스웨어	패러다임
1900년대	 <p data-bbox="285 614 563 668"><그림 15> Italian Poster, 1905 <i>Museum Piece in Wimbledon</i></p> <p data-bbox="632 614 769 722"><그림 16> Ms. Lambert, 1903 <i>Encyclopedia of Tennis</i></p> <p data-bbox="824 614 975 697"><그림 17> Early Days, 1905 <i>Wimbledon, 1993</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교복에서 스포츠웨어로 - 관람복과 경기복이 분리됨. - 미디스커트의 등장. - May Stein 스타일의 유행.
1910년대	 <p data-bbox="244 1020 385 1155"><그림 18> Withman Tennis, <i>Its History, People and Events</i></p> <p data-bbox="408 1020 584 1128"><그림 19> Mrs. Irene Castile, 1917 <i>Sportswear in Vogue since 1910</i></p> <p data-bbox="642 1020 1002 1103"><그림 20> Westside Tennis Club, 1차 세계대전 전후 <i>Tennis. Its History, People and Events</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성을 위한 단순화 - 컬립스타일의 출현. - 재킷, 카디건 그리고 개더스커트. - 미디스커트의 유행.
1920년대	 <p data-bbox="241 1474 408 1582"><그림 21> Suzanne Lenglen, 1926 <i>Sportswear in Vogue since 1910</i></p> <p data-bbox="422 1474 646 1582"><그림 22> Bare-arms & Hemlines, 1928 <i>Sportswear in Vogue since 1910</i></p> <p data-bbox="659 1474 779 1609"><그림 23> Helen Wills <i>Sportswear in Vogue since 1910</i></p> <p data-bbox="797 1474 991 1582"><그림 24> Lord & Taylor, 1928 <i>Sportswear in Vogue since 1910</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피스와 무릎길이의 주름스커트(Lenglen 스타일) - Jean Patou의 컬러터번과 슬리브리스 형 무릎길이의 주름원피스. - Helen Wills의 아이메이크업. - 뒤가 트인 캡(cap) 모자와 양말 출현.

년대	테니스웨어	패러다임
1930년대	 <p> <그림 25> Tennis Wear, 1932 <i>Sportswear in Vogue since 1910</i> </p> <p> <그림 26> Chainstore Style, 1934 <i>Fashion's of a Decade the 1930</i> </p> <p> <그림 27> 사교장으로서 테니스 코트의 풍경, 1934 <i>Sportswear in Vogue since 1910</i>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스타일의 공존, 과도기 - '쇼츠(Shots)'의 출현. -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하는 가운데 팬츠가 보편화 됨. - 양말의 보편화와 긴 양말의 유행.
1940년대	 <p> <그림 28> Ms. Mary Hard Wicke와 Miss. Marbe <i>Tennis Its History, People and Events</i> </p> <p> <그림 29> Miss. Marbe, 1940년대 초 <i>Tennis Its History, People and Events</i> </p> <p> <그림 30> Moran, 1949. <i>Fashion in the Forties and Fifties</i>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적 스타일의 정립 - 디자이너 Ted Tining의 등장. - 20 cm 스커트와 레이스 팬티. - Cap 모자 스타일의 정착.
1950년대	 <p> <그림 31> Ted. Tining, 테니스웨어 1950년대 초 <i>Encyclopedia of Tennis</i> </p> <p> <그림 32> Maureen Connolly. <i>Tennis. Its History, People and Events</i> </p> <p> <그림 33> All-in-One Pants, 1951 <i>Sportswear in Vogue since 1910</i> </p> <p> <그림 34> One-piece Style, 1952 <i>Sportswear in Vogue since 1910</i> </p> <p> <그림 35> Square Neckline, 1952 <i>Sportswear in Vogue since 1910</i> </p> <p> <그림 36> Sailor Style, 1954 <i>Sportswear in Vogue since 1910</i>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렌드의 개념이 도입된 액티브 스포츠웨어 - 페미닌 스타일과 원피스의 유행. - All-in-One 팬츠의 등장. - 몸의 라인을 살리는 스판 원단. - Hairnet과 Hand-band의 출현.

년대	테니스웨어	패러다임
1960년대	 <p> <그림 37> 파티를 위한 Scallop Style, 1968 테니스웨어, <i>The Changing World of Fashion 1900 to the Present in Vogue since 1910</i> <그림 38> <그림 39> Ms. Billy King, 1969 <i>Tennis. Its History, People and Events</i> <그림 40> Francoise Durr, 1967 <i>The 75 Year of I.T.F.</i>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웨어에서 패션으로 - 미니스커트의 유행으로 평상복과 스타일이 모호해짐. - 컬러규제완화 시작. - '트레이닝 복'과 '테니스화' 스트리트패션의 유행아이템이 됨.
1970년대	 <p> <그림 41> Evonne Goolagong <i>Encyclopedia of Tennis</i> <그림 42> Chris Evert, 1972. <i>Encyclopedia of Tennis</i> <그림 43> Navrotilo-va <i>The 75 Year of I.T.F.</i> <그림 44> Nancy Richey, 1970 <i>Tennis. Its History, People and Events</i> <그림 45> Tennis Wear, 1971 <i>Sports-wear in Vogue since 1910</i>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ite'로부터 해방과 취향의 스타일 - 복색규제의 타파로 컬러사용이 허용됨. - 남성적 스타일이 출현. - 기능성 소재 유행.
1980년대	 <p> <그림 46> Sleeveless Style, 1980 <i>체육연감</i> <그림 47> 우리나라에서 유행한 테니스웨어, 1984 월간 '멋' 5월호 <그림 48> 서울 올림픽에 출전한 미국 대표 선수들, 1988 <i>The 75 Year of I.T.F.</i> <그림 49> Pam Schreiber, 1982 <i>The Changing World of Fashion 1900 to the Present</i>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티브 스포츠웨어 브랜드의 도약 - 브랜드로고 유행. - 기하학적 패턴. - 자국국기가 중요한 디자인 모티브가 됨.

년대	테니스웨어					패러다임
1990년대	 <p>〈그림 50〉 Graf, 1995 <i>The Official Wimbledon, 1995</i></p>	 <p>〈그림 51〉 Mary Pierce, 1995 <i>The Official Wimbledon, 1995</i></p>	 <p>〈그림 52〉 Monica Seles, 1996 <i>Ford Australian Open, 1997</i></p>	 <p>〈그림 53〉 Kimiko Date, 1995 <i>The Official Wimbledon, 1995</i></p>	 <p>〈그림 54〉 Gabriela Sabatini, 1995 <i>The Official Wimbledon, 1995</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웨어, 광고의 수단이 되다. - 스포츠 마케팅. - 브랜드별로 기획된 서로 다른 트렌드의 공존. - 디지털 프린팅. - 패션하우스의 스포츠웨어라인 론칭.

어라인을 출시한다. 이미 1972년 폴로셔츠를 대중의 아이템으로 올려놓은 랄프 로렌(Ralph Lauren)은 스포츠웨어의 놀라운 파급력을 인식하고, 1993년 '폴로 스포츠(Polo Sports)'를 론칭한다. 미우치 프라다 역시 1997년 '프라다 스포츠(Prada Sports)'를 통해 사업 확장을 시도한다. 80년대 액티브 스포츠웨어 브랜드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대량생산과 소비의 위력을 실감한 패션하우스들은 이 사업의 성공을 확신했다.

1990년대 테니스웨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트렌드의 방향이 스포츠웨어 브랜드들의 기획의도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것과 스포츠 마케팅의 활성화로 스포츠 스타를 위한 제품디자인이 곧 액티브 스포츠 브랜드의 상품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시기 선수들이 착용하는 경기복은 그 자체가 제품이자 광고판의 역할을 담당했다. 디지털 프린팅의 발달로 이전보다 더 자유로운 표현의 기회를 얻은 스포츠웨어 브랜드들은 시각적 효과가 뛰어난 로고와 이미지들을 경기복에 전사했다. 아디다스가 화려한 프린팅을 테니스웨어 전반에 수놓으며 시선을 집중시킬 때, 나이키는 선수들의 특징에 맞는 세련되고 절제된 디자인을 내어놓으며 차별화를 선언했다. 독일의 슈퍼스타 그라프(Graf)는 아디다스와 계약을 통해 화려한 나염과 문양이 프린트 된 경기복 입었다(그림 50)78). 반면, 나이키는 마리 피어스(Mary Pierce)와 모니카 셀레스(Monica Seles)를 기용하여 또 다른 전략을 펼친

다. 선수들의 스타일에 맞는 테니스웨어 디자인을 시도한 나이키는 피어스를 위한 전통적 스타일과, 셀레스를 위한 시크한 스타일을 각각 선보였다. 피어스는 면 스판으로 제작된 앞 중심선의 단추 여밈과 로고가 강조된 70년대 스타일의 원피스를 입었고, 셀레스는 네이비 셔츠에 다이아몬드 문양이 프린트 된 주름스커트를 입어 피어스와는 차별화된 스타일을 완성했다(그림 51, 52). 이외에도 요넥스(Yonex)는 기미코 닷데(Kimiko Date)선수를 통해 줄무늬가 들어간 심플한 스타일을, 리복(Reebok)는 가브리엘 사바티니(Gabriela Sabatini)를 통해 자수 테잎이 트리밍된 셔츠와 주름스커트를 내놓는다(그림 53, 54). 1990년대 중반이후, 셔츠의 소매부분과 스커트의 왼쪽하단에 덕지덕지 붙은 브랜드의 레이블들은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 크기가 커졌지만, 이를 통해 대중들은 그라프(Graf)를 보고 아디다스의 세줄 무늬를 피어스(Pierce)와 셀레스(Seles)를 보고 나이키의 스우시(Swoosh)로고를 연상했다. 이 스포츠 마케팅의 성공으로 아디다스와 나이키는 막대한 순익을 올렸다.

I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10년 단위로 20세기 여자 테니스웨어의 디자인 특성을 고찰하는데 있었다. 19세기 말 사교복을 착용하고 경기를 펼쳤던 테니스 애호가

들은 1877년 워블던 창설을 계기로 복색을 규제하며, 관람복(Spectator Sportswear)과 차별화된 경기복(Active Sportswear)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를 계기로 20세기 초 테니스웨어의 복식 단순화가 시작되었고, 1921년 장 파투(Jean Patou)와 수잔 령렌(Suzanne Lenglen), 1949년 테드 틴닝(Ted Tining)과 갓시 모란(Gussie Moran)의 공조, 1968년 미국 선수들의 복색규제 타파, 1970년 스웨덴의 인그리드 벤자(Ingrid Benza) 선수의 복식규정 위반 등의 사건들을 겪으며 기능성과 심미성을 만족시키는 액티브 스포츠웨어로 발전했다.

10년 단위로 추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

첫째, 1900년대는 발목길이의 맥시스크र्ट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미디스크र्ट의 등장으로 테니스웨어의 기능성이 강조되었고, '경기복은 화이트(White)로 제작되어야 한다'는 복색규정으로 관람복과 경기복이 명확히 분리되었다. 곧, 1900년대 테니스웨어는 '사교복에서 스포츠웨어'로 형식의 전환점을 맞았다.

둘째, 1910년대는 테니스 클럽을 중심으로 기능적 경기복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재킷, 카디건, 미디길이의 개더스커트로 구성된 유니폼 형태의 테니스웨어가 유행했다. 터번이 출현해 모자와 함께 사용되었고, 타이와 벨트도 개인의 취향에 따라 착용되었다. 1910년대에는 테니스웨어의 '기능성을 위한 단순화'가 시작되었다.

셋째, 1920년대에는 장 파투(Jean Patou)가 디자인한 '령렌(Lenglen) 스타일'이 패션 아이콘으로 급부상했고, 컬러터번이 유행했다. 팔이 드러나는 소매와 무릎길이 스커트가 기본인 이 스타일은 몇 년 후 유행할 평상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듯 했다. 또한, 윌스(Wills)의 아이 메이크업과 양말 역시 유행의 대열에 합류했다. 1920년대는 '원피스와 무릎길이의 주름스커트'를 기본으로 한 령렌 스타일이 테니스웨어 유행을 주도했다.

넷째, 1930년대는 '쇼츠(Shots)'가 1936년 최초로 출현했으나 유행에 실패했고, 1920년대에 이어 무릎길이의 스커트가 주류를 이루었다. 하지만, 맥시, 미디, 무릎위의 짧은 스커트까지 다양한 스타일들이 동시에 출현했고, 팬츠와 양말이 보편적 아이템으로 정

착되었다. 곧, 1930년대는 앞으로 다가올 현대적 테니스웨어 스타일 정립을 위한 과도기로 '다양한 스타일의 공존기'였다.

다섯째, 1940년대 테니스웨어는 망위 2cm로 그 길이가 제한되었던 스커트가 50년 만에 20cm가 넘지 않는 미니형태로 변화하며, 심미성과 기능성을 모두를 만족시키는 스타일을 선보였다. 캡 모자도 이 시기에 나타났다. 1949년 20cm 스커트에 레이스 팬티로 착장된 테드 틴닝(Ted Tining)의 쇼츠(Shots)가 출현하면서 1940년대는 테니스웨어의 경기복 형식을 완성했다. 이 시기는 '현대 테니스웨어의 스타일이 정립'된 때이다.

여섯째, 1950년대 테니스웨어는 다양한 스타일의 여성스러운 원피스 라인과 몸의 곡선을 살려주는 스판 소재가 유행했고, 올인원(all-in-one)팬츠가 등장했다. 헤어넛(hairnet)과 핸드밴드(hand-band)도 이 시기에 출현했다. 페미닌은 이 시기 테니스웨어의 스타일을 결정짓는 트렌드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다양한 여성성들이 표현되었다. 1950년대는 테니스웨어에 '트렌드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일곱째, 1960년대 테니스웨어는 기능복이 아닌 새로운 패션 트렌드를 완성시키는 아이콘으로 부상했다. 스트리트패션은 '트레이닝복'과 '테니스화'를 유행시켰고, 모더니즘의 정신을 이어받은 디자이너들은 패션의 관점에서 스포츠웨어를 재해석하며 '미니스크र्ट'를 최고의 패션 아이템으로 올려놓았다. 스타일리스트의 출현으로 테니스웨어에 패션성이 강조되었고, 이로 인해 테니스웨어는 평상복과 스타일이 모호해졌다. 곧, 1960년대 테니스웨어는 '스포츠웨어에서 패션아이콘'이 되었다.

여덟째, 1970년대는 복색규정타파로 컬러가 자유롭게 사용되고 디자인의 범위가 확대되어, 개성적 디자인들이 출현했다. 이 시기 테니스웨어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되는데, 하나는 개인적 취향이 더욱 중요해져 여성적 스타일과 남성적 스타일이 혼재하는 가운데 취향이 의복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원단의 혁명으로 디자인이 아닌 소재가 기능성을 고려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다. 1970년대는 '화이트(White)로부터 해방을 통해 취향

중심의 스타일이 보편화'되었다.

아홉째, 1980년대는 기하학적 패턴과 자국국기를 모티브로 한 테니스웨어 디자인들의 주류 속에, 브랜드 로고(logo)가 테니스웨어 디자인의 모티브가 되기 시작했다. 다양한 스포츠 액세서리들이 개인 취향에 따라 선택되며 이 시기 스포츠웨어는 기능성을 넘어 하나의 독립적 트렌드로 그 자리를 확고히 굳혔다. 1980년대는 테니스웨어가 기호학적 의미를 내포하게 되면서 '액티브 스포츠웨어 브랜드들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열 번째, 1990년대에는 패션하우스에서 새로운 스포츠웨어라인 브랜드들을 론칭한 가운데, 테니스웨어는 액티브 스포츠웨어 브랜드들이 브랜드의 기획의도에 맞는 디자인들을 제시하며 각기 다른 트렌드를 제안했다. 또한, 스포츠 마케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다양한 스타일의 로고가 디자인되었고, 이것은 레이블이 되어 선수들의 의상에 부착되었다. 곧, 1990년대 '스포츠웨어는 광고의 수단이 되었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액티브 스포츠웨어 브랜드들은 기업이윤을 극대화시켰다.

테일러드 슈트의 착용을 여성에게 허용하며 20세기 초 복식 단순화에 영향을 준 여자 테니스웨어는 이 시기 중반이후 대중을 위한 패션 아이템을 선보이며 실루엣뿐만 아니라 기능적 섬유개발에 기여했고, 최근에는 하이패션에서 독립적 모티브로 사용되고 있다. 1949년 영국의 ICI(Imperial Chemical Industries)사의 테릴렌(Terylene), 1953년 ICI에서 제조기술을 이전 받아 미국의 뉘퐁(Dupont)이 제작한 데이크론(Dacron), 1976년 라이크라(lycra)의 레오타즈(leotards)와 같은 고기능성 섬유들의 점진적 개발을 필두로 1970년대 이후 테니스웨어는 경기력 향상과 동시에 완벽한 코디네이션으로 연출되어 패션너블한 스타일을 완성시키며 패션시장에 새로운 트렌드를 제공했다. 특별히 1980년대 액티브스포츠웨어 브랜드들의 도약은 현대 상업패션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패션하우스들의 비즈니스패턴을 변화시켰다. 1990년대 이후, 테니스웨어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스포츠 스타일의 개인적 성향을 철저히 반영한 '기획의상'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스포츠웨어 브

랜드들은 이를 대중적 취향으로 전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2010년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의 에르메스(Hermes) S/S(Spring/Summer) 컬렉션은 재킷, 클럽 티셔츠, 카디건을 주류로 웹블던 테니스웨어를 재현하며 테니스를 패션하우스의 시즌 콘셉트로 선택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20세기 여자 테니스웨어의 변천과정이 현대 복식사에 의의를 남기는 이유는 이것이 대중패션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촉매제의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20세기 액티브 스포츠웨어 디자인의 특성을 구분 지으면서, 시대별로 언급된 디자이너들의 모든 작품을 분석하지 못한 점, 자료선정과정에서 연구자가 취합한 문헌자료에만 치중해 연구가 진행된 점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는다.

참고문헌

- 1) Calasibetta, C. M. (1988).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2nd ed.). New York: Fairchild Pub., p. 545.
- 2) Laver, J. (1988). *A Concise History of Costume and Fashion*. London: Thames & Hudson, p. 275.
- 3) Potter, C. L. (1984). *Sports Wear in VOGUE Since 1910*. New York: Abbeville Press, p. 7.
- 4) Gold, A. (1987). *The 75 Years of Fashion*. New York: Fairchild Pub., p. 40.
- 5) Martin, R., Kirkland, S. & McComb, R. D. (1985). *All American: A Sportswear Tradition*. New York: FIT, p. 36; Pexton-Murray, M. (1989). *Changing Style in Fashion*. New York: Fairchild Pub., p. 175.
- 6) 김지현 (2003) *현대패션에 나타난 스포티브룩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경희 (2004). *현대패션에 나타난 스포티브룩의 유행과 미적특성*. *한국패션비즈니스*, 8(1), pp. 91-106.
- 7) 엄준희, 김민자 (2003). 1990년대 이후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트렌드 분석. *섬유기술과 산업*, 7(28), pp. 407-427; 하승연, 이연희, 박재욱 (2006). 21세기 이후 스포츠웨어의 미적 특성: New York Collection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0(6), pp. 880-891; 김은영 (2005). *현대 스포츠패션에 나타난 에스닉 이미지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강석연 (1984). *레저스포츠웨어에 관한 고찰: 여성테니스웨어 디자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은영 (1999). 테니스웨어의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섬유기능대학 논문집*, 4, pp. 145-164; 박신미 (2000). *프로선수를 위한 스포츠웨어 디자인연구: 여자 테니스웨어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정재희 (1992). *20세기 여성 스포츠웨어에 관한 연구*:

- 1910-1980년 구미 여성 스포츠웨어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승연, 이연희, 박명자 (2004). 20세기 스포츠웨어에 표현된 니트디자인. *한국 의상디자인학회지*, 8(2), pp. 89-102.
- 10) Ford Australia Open (1992). *Ford Australia Open 13-26 Jan. 1997*. Melbourne: Ford Australia Open: I.T.F. (1988). *The 75 Year of International Tennis Federation 1913-1988*. London: I.T.F.: Wimbledon (1993). *WIMBLEDON 1993*. Wimbledon: Up the Lawns of the All England Club: Wimbledon (1995). *The Official Wimbledon 1995*. Wimbledon.
 - 11) Robertson, M.(ed.) (1974). *The Encyclopedia of Tennis*. London: Allen & Unwin: Grimsley, W. (1971). *Tennis Its History, People and Events*. New Jersey: Englewood Cliffs: 대한체육회 (1990). *체육연감*. 서울: 대한체육회.
 - 12) Gold, A. (1987). *The 75 Years of Fashion*. New York: Fairchild Pub.: Lee-Potter, C. (1984). *Sports Wear in VOGUE Since 1910*. New York: Abbeville Press: Carter, E. (1977). *The Changing World of Fashion 1900 to the Present*. Introduction by Vree, D., New York: Putnam: Dornier, J. (1975). *Fashion in the Forties and Fifties*. London: Ian Allan Pub: Costantino, M. (1991). *Fashion of Decade: The 1930s*. London: B.T. Batsford: Pexton-Murray, M. (1989). *Changing Style in Fashion: Who, What, Why*. New York: Fairchild Pub.: Martin, R., Kirkland, S. and McComb, R. D. (1985). *All American: A Sportswear Tradition*. New York: FIT.
 - 13) 월간 '멋', 東亞日報社, 1984년 5월호.
 - 14) 테니스의 역사. 자료검색일 2000.07.30, 자료출처 <http://my.netian.com/~woods/te.htm>
 - 15) Grimsley, W. *op. cit.*, p. 6.
 - 16) *Ibid.*
 - 17) *Ibid.*
 - 18) *Ibid.*
 - 19) *Ibid.* p. 5.
 - 20) *Ibid.* p. 6.
 - 21) Robertson, M.(ed.) (1974). *The Encyclopedia of Tennis*. London: Allen & Unwin.
 - 22) Grimsley, W. *op. cit.*, p. 5.
 - 23) *Ibid.*, p. 7.
 - 24) E. Wikipedia (2009. 09. 14). *Jeu de paume*. retrieved 2009, Sep. 27, from http://en.wikipedia.org/wiki/Jeu_de_paume
 - 25) '펠라타(Pelata)'는 맨손이나 글로브 그리고 라켓을 사용하여 공을 번갈아 벽에 때리는 경기이며, '하이 알라이(Jai Alai)'도 이 경기의 일종이다. 이 경기는 정면의 벽에 맞고 되돌아오는 공을 테니스처럼 원 바운드 혹은 노 바운드로 받아쳐서 놓치면 상대방 득점이 된다. 사용하는 용구에 따라 경기방법도 달라지며, 스쿼시와 같이 전후좌우의 벽을 이용하는 종목도 있다. 바스크 지방을 중심으로 에스파냐·프랑스 등지에서 성행하고 있으며,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대회에서 시범 경기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Open Tory (2005. 07. 17) Pelata. retrieved 2009. Set. 28, from <http://www.opentory.com/index.php/%ED%8E%A0%EB%A1%9C%ED%83%80>
 - 26) Anna T. (2005. 06. 22). *The True Home of Tennis*. Country Life. retrieved 2009. Set. 28, from http://www.countrylife.co.kr/news/culture/artical/76487/The_True_Home_of_Tennis
 - 27) 스페어리스틱(Sphairistike,)은 이후 '스티키(Sticky)'로 축약되어 불리게 된다.
 - 28) E. Wikipedia (2009. 09. 11). *Tennis*. retrieved 2009, Sep. 27, from <http://en.wikipedia.org/wiki/Tennis>
 - 29) *Ibid.*
 - 30) Grimsley, W. *op. cit.*, pp. 6-8.
 - 31) I.T.F. (1988). *The 75 Year of International Tennis Federation 1913-1988*. London.
 - 32) *Ibid.*, pp. 6-9.
 - 33) I.T.F Tennis (N.F). *History of Tennis*. retrieved 2009. Oct. 18, from <http://itftennis.com/abouttheitf/worldwide/history.asp>
 - 34) Grimsley, W. *op. cit.*, p. 3.
 - 35) International Tennis Federation (1988). *The 75 Year of International Tennis Federation 1913-1988*. London: I.T.F.
 - 36) 19세기말 사교장 중심으로 발전되어온 테니스는 당시 여성이 즐길 수 있던 몇 안 되는 스포츠였으며, 20세기 중반까지 여성을 중심으로 발전되어왔다.
 - 37) *Ibid.*
 - 38) Wimbledon Lawn Tennis Museum, *Brown Color Tennis Wear (1879)*, retrieved 2000. July 30, from http://www.wimbledon.org/en_GB/about/museum/index.html
 - 39) Rexford, N. (2006). *The Perils of Choice: Women's Foot Wear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p. 157 edited by Riello, G. & McNeil, P., *Shoes: A history from Sandals to Sneakers*. London: Berg, pp. 138-159.
 - 40) Wimbledon (1993). *op. cit.*, p. 77.
 - 41) Blum, S.(ed.) (1974). *Victorian fashions and costumes from Harper's bazar, 1867-1898*. New York: Dover Publications.
 - 42) '지곳소매(Gigot Sleeve)'는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과도하게 부풀려진 소매 형태로서 19세기말 대표적 소매 양식이다.
 - 43) Brooklyn Museum, *Tennis wear (1895)*. retrieved 2000. July 30, from <http://www.brooklynmuseum.org>
 - 44) p. 5 테니스의 발전 참고.
 - 45) Grimsley, W. *op. cit.*, p. 36.
 - 46) Museum Piece in Wimbledon.
 - 47) 이 스타일은 1900년대 초까지 계속해서 유행 된 소매 스타일이다<미주 42참고>.
 - 48) Wimbledon (1993). *WIMBLEDON 1993*, Wimbledon: Wimbledon.
 - 49) 뉴욕 레지모트 알모리 클럽 사진 참조: Grimsley, W.

- (1971). *Tennis Its History*. People and Events. New Jersey: Englewood Cliffs.
- 50) Grimsley, W. (1971). *Tennis Its History, People and Events*. New Jersey: Englewood Cliffs.
- 51) Lee-Potter, C. (1984). *Sports Wear in VOGUE Since 1910*. New York: Abbeville Press.
- 52) 여자 테니스웨어는 령겐(Lenglen)에 의해 전환점을 맞은 반면, 남자 테니스웨어는 르네 라코스테(Lacoste, 1904-1996)에 의해서 새로운 스타일이 연출된다. 당시 프랑스 테니스 선수였던 라코스테는 긴팔셔츠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1926년 US 오픈에서 피케로 만든 반팔 셔츠를 입었다. 그는 다음해 자신의 별명이었던 '악어'가 새겨진 셔츠를 입었는데, 이 셔츠가 인기를 끌면서 1933년 대량생산이 가능한 테니스웨어 브랜드 '라코스테'를 탄생시킨다. 이 셔츠는 1972년 폴로에서 대중에게 유행되며 이후, '폴로셔츠'로 명명된다. 경기도중 뒷자락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뒤가 앞 보다 더 길게 디자인된 이 셔츠의 뒷자락은 '테니스 테일(tennis tail)'로 불린다.
- 53) Schmid, B. D. (2005). Sports Wear, p. 35, in Buxbaum, G.(ed.), *Icons of Fashion: The 20th Century*, London: Prestel, pp. 34-35.
- 54) Lee-Potter, C. (1984). *Sports Wear in VOGUE Since 1910*. New York: Abbeville Press.
- 55) Mendes, V. & de la Haye, A. (1999). *20th Century Fashion*. London: Thames & Hudson, pp. 66-67.
- 56) *Ibid.*
- 57) Costantino, M (1991). *Fashion of Decade: The 1930s*. London: B.T. Batsford.
- 58) Robertson, M(ed.) *op. cit.*, p. 38.
- 59) 추운지방에서 여자 선수들은 트랙팬츠를 입고 경기에 입한다.
- 60) *Ibid.*
- 61) Dorner, J. (1975). *Fashion in the Forties and Fifties*. London: Ian Allan Pub.
- 62) E. Wikipedia (2009. 07. 25). *Ted Tinling*. retrieved 2009, Oct. 10, from, http://en.wikipedia.org/wiki/Ted_Tinling
- 63) 1952년 보그(Vogue)가 제안한 테니스웨어에서 '헤어넷(heirnet)'이 착용된 모델의 사진을 볼 수 있으며, 1957년 할렘 출신의 알투아 김슨(Altuea Gibson)선수의 경기모습을 보면 양 손목에 핸드밴드가 착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출처-Sports in Vogue since 1910: Tennis Its History, People and Events 사진 분석).
- 64) Lee-Potter, C. *op. cit.*, pp. 62-70.
- 65) *Ibid.*
- 66) Mulvagh, J. (1999). Street Style, pp. 86-87, in Buxbaum, G.(ed.), *Icons of Fashion: The 20th Century*. London: Prestel, pp. 86-87.
- 67) *Ibid.* p. 70.
- 68) adidas, *60 years of adidas-the stories that still inspire us today*, retrieved 2009, Oct. 10, http://www.adidas-group.com/en/ourgroup/assets/History/pdfs/60Years_HistoricalOverview_e.pdf
- 69) *Ibid.*, p. 15.
- 70) Carter, E. (1977). *The Changing World of Fashion 1900 to the Present*. Introduction by Diana V., New York: Putnam.
- 71) 이 시기 원피스 테니스웨어는 앞트임에 단추로 여밈 처리되어 있거나 트리밍 된 것이 주류를 이룬다.
- 72) Lee-Potter, C. *op. cit.*, p. 79.
- 73) Robertson, M. *op. cit.*, p. 38.
- 74) *Ibid.*
- 75) *Ibid.*, p. 39.
- 76) 박명희, 최혜주 (2002). 1970년대 패션, p. 265 in 금기숙 외 (2002). *현대패션100년*. 서울: 교문사, pp. 235-266.
- 77) 월간 '멋', 東亞日報社, 1984년 5월호.
- 78) Wimbledon (1995). *The Official Wimbledon 1995*. Wimbledon: Wimbledon.